

봉준호와 방탄소년단. 2020년을 대표한 두 인물이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첫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그룹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를 싹쓸이 했다. 나란히 세계 영화사와 음악사를 다시 쓰는 진기록을 연출했다. 감염병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들이 전한 영화와 노래는 단순한 역사를 넘어 우리의 자부심이자, 위로의 메시지였다.



봉준호 감독은 올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였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며 세계영화사를 다시 썼다. 2021년에도 그가 만든 '역사' 위에 희망의 여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2월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는 봉 감독(가운데)과 주역들. LA(미국) | AP·뉴스시

## 아카데미 4관왕·빌보드 1위...美 장벽을 허물다

### ▶ 아카데미 92년 역사 새로운 봉준호

기생충 작품상, 비영어권 영화 최대 성과 현실의 빈부 문제로 세계 관객들과 교감 "코로나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최근 스페인 일간지 엘모도 인터뷰를 통해 희망을 말했다. 바이러스 퇴치의 강렬한 열망이면서, 쌓아온 다양한 성과 위에서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한 바람일 것이다. 성과의 정점은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이었다. 그는 지난해 선보인 영화 '기생충'으로 올해 2월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국제장편영화상 등을 거머쥐었다. 특히 한진원 작가와 함께 각본상을 받고 감독상까지 품에 안으며 오묘한 명장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이는 세계영화사를 다시 쓰게 한, 뚜렷한 전환의 장면으로 남았다.

### ● 세계영화사 다시 썼다

'기생충'의 작품상은 1927년 제정된 아카데미상의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거둔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단일 작품의 4관왕도 아카데미상 사상 최초 기록이다.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한국영화 100년사를 다시 쓴 뒤였다.

"세계의 승리"(AP통신), "아카데미상 92년사의 새로운 시대"(CNN·가디언) 등 극찬이 쏟아졌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스카 소 화이트"("#Oscars So White·백인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로 대표되는 보이콧에 맞서 인종 다양성 확보에 노력한 역사적인 승리"라 평했다. 인종과 젠더 등 차별로 상징되는 보수적 분위기의 아카데미상이 다양성을 향한 변화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 ● 보편성 가치 다시 쓰다

'기생충'은 '갖지 못한 자' 기택(송강호)과 '가진 자' 박동익(이선균)을 중심으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빈부의 격차, 양극화의 문제를 고발하며 '가족희비극'의 보편적 이야기로 인정받았다. 봉 감독은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에 관객이 공감한 덕분이다"면서 "시대

의 민낯을 최대한 솔직히 그려려 했다. 그것이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아카데미상을 품에 안고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와 문화, 정서의 차이는 영화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데 결코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수상 소감이었다.

### ● 영화, 다시 쓴다

봉준호 감독은 현재 신작을 모색 중이다. "한국어 영화와 영어 영화"를 동시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 영화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그린다. 또 영어 영화는 "2016년 런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는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는 할리우드 진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를 통해 세상에 대해 발언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봉 감독은 말했다.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는 말, 다시 새로운 길 위에 서겠다는 다짐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 코로나시대, 희망 노래한 BTS

월드투어 무산이 '다이너마이트' 탄생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 세계 음악시장 주도 1월말 그래미 어워즈 수상 할지도 관심

"올해는 아미(팬클럽) 여러분과 멤버들이 서로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었다. 다 같이 노래를 만들고 춤추고 연습하고, 원래 우리가 하던 일상들이 행복이고 희망이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분이 우리 음악을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밀바다부터 올라와서 아미와 동반 성장한 느낌이다. 서로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같다. 한국 문화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나눈 인터뷰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Entertainer of the Year)으로 선정하며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그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아미와 소통하면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세상 멈춰 다른 연예인 대부분이 실패했지만, "BTS는 일을 해냈다"고 했다.

### ● 신기록...세계사까지 다시 쓴 BTS

2020년은 사실 방탄소년단의 해이다. 현재도 대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리더 RM이 "이런 비극적인 시대 상황에서 저희가 뒷걸음치다가 천운처럼 만나게 된 곡"이 '다이너마이트'가



상상은 현실이 됐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보다 'BTS'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불렸다. 한국어 가사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을 집계하는 빌보드 싱글 1위에 올랐고,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도 올랐다. 세계 대중음악사에 좀처럼 깨지지 힘든 기록을 남기며 2020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방탄소년단.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된 것처럼,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예정됐던 월드투어 계획이 모두 무산되면서 새 앨범 작업을 시작해 8월 디지털 싱글을 발표했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다.

코로나19의 "비극"이 기회였던 셈이다. 방탄소년단은 이 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며 세계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9일 현재 16주째 '핫100' 상위권에 올라 대중적인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다.

10월 한국어 가사로 피쳐링에 참여한 조시 685와 제이슨 데블로의 '새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1위에 올랐다. 1위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1월 발표한 미니음반 '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은 앨범·싱글 차트를 모두 석권했다. 한국어 가사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비영어권이 발매 첫 주차 1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이들의 신기록 행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내년 1월31일 열리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주요 외신들은 최근 미국 타임지가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하면서 수상을 긍정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다.

### ● 글로벌 성장...앨범 판매량 4000만장 돌파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국내 앨범 총판매량은 4000만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물 음반 판매량 상위 400위 합계는 4026만장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56만장보다 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총 916만7879장을 팔아치웠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28.4%나 차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이수만, 美 '버라이어티500' 4년 연속 선정



이수만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미국 대중문화지 버라이어티가 뽑은 '버라이어티500'(Variety 500)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버라이어티 500'은 버라이어티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인을 선정해 발표하는 리스트다. 버라이어티는 "케이팝의 개척자로서 여전히 영향력이 강력하다"며 "케이팝 어벤저스"라 불리는 슈퍼엠 등의 성과를 꼽았다. 명단에는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봉준호 감독, 이미경 CJ 부사장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 음주운전 적발된 배우 배성우 검찰 송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배성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 주 검찰에 넘겨졌다. 배성우는 지난해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우는 이번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같은 소속사 배우인 정우성이 투입돼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

#### 문세윤·김민경 '오늘부터 환경동' 홍보 모델



문세윤

김민경

개그맨 문세윤과 김민경이 환경부 분리배출 캠페인 '오늘부터 환경동' 홍보 모델로 발탁됐다. 최근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문세윤과 김민경이 비우기, 헝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운동과 댄스에 도전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동'의 콘셉트로 영상을 촬영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일화·안선영, 한파 녹인 온정의 손길



이일화

안선영

연기자 이일화와 방송인 안선영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였다. 이일화는 4년째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했고, 안선영도 2014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최근 비대면으로 진행된 애장품 경매 수익금과 라디오 출연료 등을 더한 것으로 장애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안선영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논문 표절 의혹 설민석 "모든 방송 하차"

최근 역사왜곡 논란에 이어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된 한국사 교사 설민석(50)이 결국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도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설민석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설민석이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가 다른 논문을 표절했으며, 논문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로 확인한 결과 표절률이 5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설민석의 하차로 현재 출연중인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은 차질을 빚게 됐고, 특히 tvN '설민석의 별거벗은 세계사'는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